# 모든게 공 안의 도리이니 그냥 몰락 공 안에다 놔버려라

☞ 21면에서 계속

더라' 그러면 남도 '이런 게 이런 게 들더라' 하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으로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러니까, 남도 바로 나니까 무심으로 시주를 하게 되고 무심으로 갖다 놓게 되고 그런다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자기 한테로 가는 건데, 어째서 자기 쓰기 위해서 쓴 거를 남 쓰게 해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으로써 그대로 자기 쓰는 것이 돌아오는 거라. 절에 갖다가 시주하는 것도 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림 하는 데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 남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준 것만 치밖엔 안 가. 그러나 무심으로 줬을 때는 무심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무주상으로 간다 이겁니다. 내가 '요만큼 줬는데….' 하면,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까짓 것 가 봤던들 새 발의 피지.' 그러나 무심으로 줬을 때는 무주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면 그 이자율이 아주 무한량 간다는 얘기야. 이자라는 말도 없이 말이야.

이러한 법이 얼마나 좋은데 그 이름을 붙여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논의를 하고, 이름을 붙여서 말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만 이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 하고, 재차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 하면 그 하나 하는 것을 그냥 공 안에 놔 버려라. 이거 하나 하면 이거 놔 버려라. 일거일동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 공 안의 도리니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다 놔 버려라.

그러면서 여여하게, 그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지키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지키게 되고, 계율이라는 이름 없이 철저하게 지키게 되고 아주 다양하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진짜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수천 리 밖에도 내가 갔다 왔다 할 수가 있고, 수만 리 밖에도 갔다 왔다 할 수가 있고, 수천 리 밖을 내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주의 어떠한 공간의 어떠한 국토도, 어떠한 혹성도, 어떠한 생명도 다 만나서 다 상응할 수가 있다. 천리만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습만 떨어져 있다 뿐이지 마음은, 즉 말하자면 한 정원에 모두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운집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알게 된다면 무슨 구애받을 게 있고, 무슨 공포심이 나고, 무슨 가난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말 저 말 붙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름도 붙을 게 없어! 따지고 보면 이 라이터다 또는 향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지 않아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놨다 하더라도 이건 방편이니까 "어, 라이터하고 향하고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쓰면 이게 그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 여여함을 그대로 알아야지 이 이름만 붙들고 늘어진다면, 라이터라는 이름만 붙들고 늘어진다면 켜지도 못해요. 나중에 가서는 한 번도 켜 보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고 말아 버려요. 라이터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즉행으로 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즉설로 가고요. 그래서 즉설로 가서 즉행으로 하게 하고,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끄트머리에 가선 귀결을 짓는 것이 이것이 다 방편이고 이것이…. (녹음 안됨)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새기고 그냥 몰락 공 안에다 놔 버려라. 놔 버리는 게 목적이야.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많은 이름들을 알았고, 고도 알았고, 모든 걸 알았으니까 나오기 이전으로 다 돌려보내라. 돌려놔 버려라.

"처음 마음" 이랬습니다, 처음 마음! 그런데 사실은 그 처음 마음이 나오기 이전이라! 처음 마음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느냐 이거야. 처음 마음이 처음 마음이 아니고, 아닌 것이 처음 마음이고, 처음 마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처음 마음이라는 것도, 아까 마음이라는 것도 삼심이 다 공했으니까, 모두 우리가 여여하게 쓰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니 무슨 처음 마음이다 나중 마음이다 이런 이름 붙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전자에 여러분이 모를 때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걸 얘길 해 놓고선, "그것이 바로 네 주인공이 하는 거다. 네 심주가 하는 거다." 이렇게 했고, 나중엔 "그 심주마저도" 했으니 "그것도 이름해서 심주지, 그것도 몰락 놔 버려라."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심으로 이름을 불러야지, 그 이름이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글러 돌아갑니다. 그래 무심으로 이름 부르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무심으로 그냥 여여하게 살고…. 아이, 그 사람도 참 못난 사람이지, 점심을 달랬으면 점심을 먹고 나갈 것이지 아니, 그거 한마디에 걸려 가지고서는 점심을 못 먹고 나가? 졸장부처럼? 아, "과거심 불가득 삼세심 불가득" 할 때 말이야. 아이, 그놈의 게 글쎄, "현재심에 점을 찍으랴, 과거심에 점을 찍으랴." 이랬을 때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 현재심이지 어떤 것이야? 거기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그냥 나가, 그래?

이런 것도 바로 객설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왜냐. "그런 것도 왜 못 먹고 나가느냐." 하는 소리는 그분, 전자의 그분더러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의 여러분 중에 그러한 실수는 저지르지 마라. 현재의 여러분이 그런 말에 걸려서 점심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갈 분이 있다면 그럭하지 마라.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캄캄한 데서 불 하나 켜지는 거 보고 대오를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안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반으로서 같이같이 배우는 길에 있어서는 즉행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기차를 타도 빨리 가려면 '즉행'을 타야지, 버스도 '즉행'을 타야 하고 비행기도 '즉행'을 타야 빠르죠. 완행이 있고 그래선 안 되죠. 완행을 타다 보면 탈 사람도 다 없어진 연에 완행은 해 뭘 하고, 직행은 해 뭘 합니까? 나중에 직행을 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깐 직행을 탈 놈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 차 놓치고 언제 손 들어?

그저 그거 하나 사인데, 그렇게 간편한 거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고 이만하면 자유스러운 것을, 뭣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얽매여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빠지면 그냥이나 있나? 울며불며 나오려고 뒹굴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 소리지.

그 생명수는 두루두루 온 누리를 다 적셔 주니 어느 생명 하나도 '받지 않았다, 받았다' 하지 않으면서, 바로 받으면서 우린 여여하게 살고 있으니 이것이 시쳇말로 '공기로써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두루 하고 있는데 누가 부처님의 밝음을 받지 않았다고 보리까. 부처님은 개인 개인 하나 들어오는 대로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생명이 있다 하는 거는 다 비가 내려서 적셔 주듯이, 그렇게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마음의 태양을 줘서 기르시고, 비를 줘서 적셔 주는데 그 생명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 그렇게 적셔 주고 그렇게 살려 줘도 모르더라 이거야.

그러니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더라. 지수화풍으로 모였으니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되고 태양이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 태생이 바로 흙의 태생이고 나중에 남는 것도, 사리가 남는 것도 그게 흙이라. 그게 흙이 구워진 거지 다른 거 없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가고 옴도 없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둥글게 빛이 나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대로 여여한데. 아니, 공기를 줄 때 돈 받고 줍디까? 허, 바람이 불어 줄 때 돈 받고 바람 불어 줍디까? 또 이 땅이 돈 받고 걸어 다니라고 합디까? 지금은 나라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돈을 받습디다, 받기는. 그렇지만 태양도 돈 받고 비춰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쓰는 거지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없어요. 구애받지 마세요. 그건 자기 마음으로 구애를 받게 만들어 놓고 구애를 받는 거뿐이에요. 본래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모두 마음으로 지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졸린 것도 그것도 도라. 공 안에 나왔기 때문에 공했고, 공했기 때문에 졸림도 있는 거고, 눈도 반짝 뜨는 거고, 말도 하고 행도 하고 이러는 거지 아니, 그게 없으면 졸릴 게 뭐 있나? 그래서 말이야, 거기서…. (녹음 안됨)

둘이 아닌 그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여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에누리 없이 비구 비구니가 없고, 여자 남자가 없고, 애 어른이 없고 그런 도리, 그런 공 안에 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략)

'내 한 몸뚱이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넋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까짓 몸뚱이야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몸을 갈아서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해도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서슴지 않고 내 백 개라도, 천 개, 만 개라도 부숴 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숴서 될 일이 아니더군요. 내가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만 해도 바다를 메우고, 아마 바다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를 삼킬 수 있는 그 눈물이었다는 걸 생각할 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눈물로 하여금 바다를 이뤘고 바다를 이뤘기 때문에 그 바다를 마실 수 있었다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뭡니까. 이런 게 무슨 나한테 해당이 됩니까마는 여러분이 그 뜻을 아시고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여러분이 갖다 주는 사이 없이 갖다 줬고 받은 사이 없이 적절하게 써 나가는 이 행이, 모두가 내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마음이지, 이놈이 하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이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이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한번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천지와 더불어 같이, 그분네들과 같이 울게 되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거든요. 아무렇지 않으면서도 여기에서는 같이 울고 있다. 그 쾌활 쾌활이라는 거는 울면서도 쾌활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서 감동하니 같이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빗물도 될 수 있고, 에너지도 될 수 있고, 공기도 될 수 있고요. 물이 한데 뭉쳐서 공기가 될 수도 있고요. 참 모두가 다양하게, 피도 이룰 수가 있고요. 참 좋은 거랍니다.

부처님 뼈다귀는 우려도 우려도 나오듯이 그 뼈다귀 속에서, 뼈다귀도 없는 그 속에서 같이, 그 마음과 마음이 감동해서 서로 우는 눈물은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눈물, 그 눈물입니다. 이 세상을 주고 그 눈물 한 방울하고 바꾸려 하면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대도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정입니다. 바꿀 수 없고말고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한 것을**
**뭣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서 아둥바둥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사십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4년 4월 10일 일반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